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복음 나누기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요한 16,14)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요한 16,12-15
-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 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삼위일체대축일’은 성부(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와 성자(은총을 내리시는 예수님)와 성령(일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삼위께서 높고 낮음이 없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며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심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복음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식사를 하신 성목요일 때의 일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셨으며,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셨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당신을 비유하시면서 당신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요한 13,1-16,15).

그리고 복음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12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13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참된 이치인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으로 직접적으로 진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전기에 등장하는 위인 정도로 남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의 믿음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느님과 아드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였고,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은 다 알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곧 닥쳐올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수난과 죽음 앞에 많은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당부하시며,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 가시게 되어 제자들의 곁에 있을 수 없게 되겠지만, 예수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느님과 예수님과 한분이시기에 삼위를 믿는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확신을 주는 인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첫 세대 사람인, 바오로 사도는 ‘진리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불경하고 죄인인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로마 5,6-8). ‘하느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여했습니다(야곱의 우물 5월호 중에서).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일상 안에서 성호경을 그으면서 자랑스럽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순간이었는지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